

따뜻한 기후·저렴한 땅값 매력... 최근 3년간 귀농 8배 늘어

전남 귀농·귀촌 추이와 실태

2011년 1802가구...63%가 40·50대 지자체 지원책 한몫...역대 부농도 급증

김경호(41)씨는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이슬촌마을에서 8년째 귀농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집과 논이 있는 처가마을을 귀농지로 결정하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초기부터 안착할 수 있었다. 무항생제 양계장과 유기농 쌀 재배로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려 400여 만원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모(49)씨는 지난해 6월 33년간의 광주생활을 정리하고 장성군 삼서면의 장성드림빌에 입주했다.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던 차에 조그만 텃밭을 가꾸면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야채로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 인근에 명동고가 있어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했다. 전국 최초의 농어촌 뉴타운인 장성드림빌은 이씨처럼 귀농·귀촌한 세대가 200가구(분양 70가구, 임대 130가구)에 달한다. 입주율 100%에 5년후 분양전환하는 임대가구는 입주 대가가 2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전날이 귀농·귀촌의 적지로 각광 받고 있다. 전국에서 음이온이 가장 많은 깨끗한 공기와 물, 풍부한 일조량과 온화한 기후 등 자연환경에다 주택 및 농지가격이 저렴한 초기 정착비용이 적게 든다는 매력이 도시민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1만503가구가 농사를 짓거나 전원생활을 즐



귀농·귀촌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전남지역 한 귀농 학교에서 귀농 희망자들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기 위해 도시를 탈출해 농촌에 자리를 잡았다. 전남으로는 1802가구가 내려와 강원(2167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이 가운데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순수 귀농가구는 84.4%인 1521가구에 달했다. 나머지 281가구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텃밭 정도를 가꾸며 전원생활을 즐기는 귀촌 가구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87명(32.6%)로 가장 많았고 50대 553명(30.6%), 30대 309명(17.1%), 60대 256명(14.2%) 순으로 집계됐다. 귀농인들의

절반 가량이 804명(44.6%)은 생안기술이 복잡하지 않고 초기 투자비용과 실패 확률이 낮은 벼·배추 등 2차작물을 재배했다. 나머지는 원예 191명(10.5%), 과수 164명(9.1%), 축산 116명(6.4%)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에 귀농·귀촌이 늘기 시작한 시기는 2009년부터다. 3년 동안 연간 200여 가구 수준이던 귀농·귀촌 인구는 2009년 들어 전년 대비 88.6% 증가한 549가구로 늘었고 2010년에는 768가구로 39.8% 증가한 데 이어

2011년에는 134.6%나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2474가구가 전남을 찾아 전년도 귀농·귀촌 가구수를 이미 넘어섰다.

전남이 귀농지로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토지가격이다. 전국 평균 지가는 ㎡당 3만6310원인데 반해 전남은 6508원으로 강원(4113원)에 이어 가장 낮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귀농 지원 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귀농인 1만 가구를 유치한다는 목표에 귀농인 창업 및

농가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과 주택 수리비 보조지원, 귀농교육, 도시민 농촌체험 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들도 귀농 정착자금 지원은 물론 선도 농가와 귀농인을 연결시켜주는 '멘토·멘티제' 도입,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 등을 통해 귀농인을 유혹하고 있다.

귀농으로 역대 부농의 꿈을 이룬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매출 1억원 이상 전남지역 농업인은 2753명으로 경북(749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다. 눈

길을 끄는 대목은 2009년 귀농이 본격화 된 이후 2년만에 148.7% 증가한 1646명이 역대 부농 반열에 새롭게 올라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뚜렷했다는 점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요즘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인생 2모작을 전원에서 찾으려는 '가치형 귀농'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귀농한 부모를 찾아 명절을 보내는 풍속도도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단위:가구)

지역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4080	4067	10503
부산	-	-	-
대구	-	-	-
인천	26	20	123
광주	-	-	1
대전	-	-	-
울산	-	-	-
경기	102	69	224

“소득 5배 줄었지만 행복지수는 5배 늘어”

귀농 5년차 강진군 귀농인협회장 조병국씨



강진읍에서 조금 떨어진 호산마을 끝자락에 동지를 튼 조병국(54) 강진군 귀농인 협의회 회장. 귀농 5년차인 그는 강진읍에서 '서비스맨'으로 불린다. 최근 전국 최초 귀농인 협동조합인 다올협동조합이 출범하면서 그의 명함에는 조합장이라는 명칭이 하나 더 늘었다.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전문의로기 회사를 운영하며 돈도 벌었지만 인간으로서 이렇게 정신 없이 살 필요가 있나라는 회의가 들었죠.”

지난 2007년부터 그는 귀농학교에 다니며 생태 귀농을 공부했다. 그리고 2년 뒤 봄 그는 가족들을 설득해 결행했다.

“우선 고등학교이었던 2명의 아이들을 설

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국립대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어쩔 수 없죠. 운 좋게도 국립대에 들어갔고, 큰 돈은 안 들겁니다.”

아무런 연구도 없는 농촌으로 내려오면서 그는 돈 대신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다짐했다. 농사도 8마지기, 무화과 시설 하우스 300평만 하고 있다. 농번기에도 반나절이면 농사일을 끝내고, 청차 밭기를 배우거나 마을 일을 볼란다.

“호산마을에 모두 45가구가 삽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2가구는 할머니가 혼자 사

요. 마을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고, 제가 가장 젊은데, 마을 일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강진귀농인협회는 모두 181명의 정회원으로 귀농인협동조합에는 54명이 출자했다. 농촌문화를 담을 수 있는 복합판매장, 농산물 가공 사업단, 공동영농경작단, 생태 주거복지사업단, 청차사업단 등을 만들어 강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생각이다.

“제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서울에서 태어나 살았기 때문이죠. 강진은 멀기는 하지만 사람이 살기에 너무도 좋은 자연과 기후, 산세 등을 지니고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서울에서보다 소득은 5분의 1토막이 났지만 행복지수는 5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조 회장의 말이다. 그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주제로 인생 2막을 열고 있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장흥 756가구 가장 선호...해남 2위, 강진 3위

전남 시군별 귀농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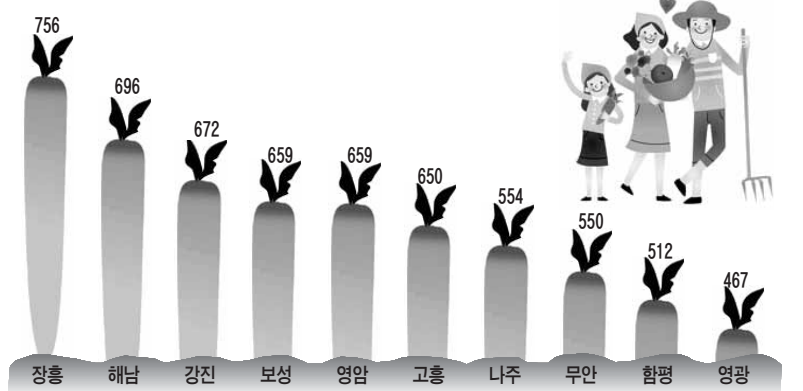
전남도에 따르면 귀농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귀농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전남 지역 귀농지는 장흥으로 조사됐다.

장흥에는 그동안 756가구가 귀농해 22개 전남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해남(696가구), 강진(672가구) 순이었다. 영암과 보성에는 각각(659가구)가 귀농했고 고흥에도 650가구가 동지를 틀었다.

이들 지역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저렴한 땅값 외에도 따뜻한 기후조건이 장점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들의 인구 유입 정책과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도 귀농 선호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보성군은 지난해 310가구를

전남 상위 10개 시·군 귀농현황 (단위:가구)



유치해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인구 유입 정책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장흥군은 로하스타운과 우드랜드를 내세워 귀농인을 유인했고 장성과 화순은 농어촌 뉴타운 개발이 호재로 작용했다.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2007년 5월 귀농자 지원정책을 만들어 64세 이하 귀농자를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면서 5년 연속 100가구 이상의 귀농자를 유치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광주반, 여수반, 남양반
- 원서 접수 기한: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방법: 면접 및 필답고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cnugpa.kr) 참조 바람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경영인 등
- 원서 접수 기한: 2013. 2. 22.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3. 관리자과정

- 모집대상: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 접수 기한: 2013. 2. 22.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화: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 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 (16기)	광주교육대학교 (7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3.3.8.(금) 09:10 (특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3.3.9.(토) 09:10 (중급반)	· 월·목 야간반 2013.3.4.(월) 19:00 (초급반) · 목요일 오전반 2013.3.7.(목)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3.3.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1.24.(목) ~ 3.9.(토)	2013.1.24.(목) ~ 3.9.(토)
수업기간	2013.3.8.(금)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3.4.(월) ~ 2013.8.17.(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 월·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예금주:광주교대) ·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0-3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0-3614-4160 ·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 http://www.gnue.ac.kr

Sthe1 요리학원

(사) 한국맛음식연구원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김치자격증반 · 대회반

각 선착순 10명 모집

푸드코디네이터 자격증반 강사진

- 푸드코디네이터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백석 문화 대학교 이진희 교수 (경기대학교 식품안전 분야 석·박사)

김치 자격증반 · 대회반 강사진

- 김치 명인 1호 이성희 원장 (한국맛음식연구원 원장, 현 조선이공대학 겸임 조교수)
- 한국 음식 대가 구본길 부학장 (고려전문학교)
- 한국 관광 대학 호텔조리과 김옥란 교수 (경기대학교 외식조리 석·박사)
- 현 신라호텔 한식과정 백영란 교수

문의 전화: 062-385-0723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2012. 3. 4(월) ~ 2013. 6. 17(금) (총 90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e.go.kr